사랑 사냥

(고전14:1~40)

1.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2.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3.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4.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사랑 사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사랑 사냥 !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사냥꾼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추적하여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게 과장 되거나 잘못된 말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냥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다 제쳐놓고 '사랑을 사냥하라, 그러면 만사가 다 제자리를 잡아갈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후한의 전설적인 명의 화타라는 사람의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화타라고 하는 분이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침술 교육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구침지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구침지희(九鍼之戱).
살아 있는 닭에, 아홉 가지 종류의 가지각색으로 서로 다르게 생긴 침이 있는데, 그 아홉 가지 침을 침 머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이 찔러 넣습니다.
근데 이렇게 침을 머리 끝부분까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이 찔러 넣을 때, 닭이 아파하거나 닭이 잘못 돼서 죽는 경우가 없도록 찌르면 이제 침술의 대가가 즉 태의가 되는 것입니다.
클 태(太)에 의사할 때 의(醫)자를 써가지고, 구침지희를 이루어 낸 침술의 달인이 되면, 진정으로 더 이상이 없을 만큼 커다란 의사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태의(太醫)라고 부릅니다.

근데, 동의보감의 저자 허 준의 스승 유 의태, 유 의태라고 하는 사람이 소설 속에만 등장한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하여간, 그 유 의태의 침술이 구침지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임금님의 건강을 돌보는 어의와 침술 대결을 할 때 이 구침지희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분이지요.
그런데 이 침술의 달인이 된 유 의태라고 하는 허 준의 스승이 자기 제자인 허 준의 침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나는 토끼를 잡기 위해 덫을 놓을 때, 그 토끼가 다니는 길목에 덫을 놓는 사냥꾼처럼 침을 놓는다고 한다면, 내 제자 허 준은 토끼가 살고 있는 동굴 입구에 올무를 놓는 것같이 침을 놓는다.'
침술의 관건은 우선은 정확한 진맥이지요, 그래서 병을 정확하게 알아내야 됩니다.
그 병을 알아냈으면 그 다음에 병에 해당되는 경혈을 누가 더 정확하게 짚어서 침을 놓느냐 하는 거예요.
침의 끝머리가 바늘 끝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혈이 있다 그래도, 그 바늘 끝 같은 것으로 침을 놓을 때, 누가 더 정확한가는 이 차이가 무한대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 준은 사냥꾼이 토끼를 잡을 때, 그 토끼가 살고 있는 동굴 입구에 놓는 것처럼 정확하게 놓는다 그러면, 나도 제법 정확하다고 하지만, 나는 토끼가 다니는 길목에 덫을 놓는 것 정도로, 내 제자 허 준보다 침술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1절에 '사랑을 추구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추구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오케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사냥꾼이 짐승을 추적할 때에 그 집요함과 그 정확성을 가지고 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사냥꾼이 사냥감인 짐승을 향해 보이는 집요함으로 추구해서 획득하라는 얘기에요.
왜 이렇게 사냥에 비유를 할까요?
사냥감과 사냥꾼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사냥꾼이 다가가서 거리를 줄이거나, 사냥꾼이 갖고 있는 도구에 의해서 거리를 줄이거나, 예를 들어 화살로 쏘았는데 빗나가면 거리가 좁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사냥이라는 것은 사냥꾼과 사냥감간의 거리를 좁혀 내는 것이고, 거리가 제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으로 사냥을 하든지 활로 창으로 사냥을 하든지 거리가 제로가 된다는 것은 명중한다는 뜻이 될 것이고, 또 올무로 사냥할 때는 동굴에 바로 거하는 동굴 입구에 올무를 놓음으로써 토끼와 사냥꾼과의 거리가 제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가지 요소와 유

기적인 연합관계에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두 단계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음으로써만, 우리는 사랑을 찾을 수가 있고, 사랑의 단계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적인 연결 단계들의 마지막 단계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가 사냥할 때처럼 집요한 마음으로 추적해 내고 획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단계 아닙니까?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사랑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냥꾼의 집요함을 가지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의 마지막 단계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의 단계와 연결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랑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믿음의 단계에서 올바르게 발을 디뎌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려고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역에서 어디에 살든지 간에 모두 인천공항으로 와야 됩니다.
김포공항도 공항이라고 해서 김포공항에 간다든지, 아니면 제가 강원도 강릉에 있는데, 강릉에서 가까운 원주 비행장이나 아니면 양양공항으로 간다고 해서 뉴욕으로 도달할 수 있는 비행기에 올라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마지막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럼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도 온전해 질 수 있는 이 사랑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단계에서 올바르게 올라타야 된다 이겁니다.
믿음의 지점이 올바른 지점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지점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고, 하나님만이 참 만족함의 근거임을 마음으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자리에서 올바르게 서는 거에요.

마지막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사랑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맥을 짚어내고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침을 놓는 듯 한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이, 내가 지금 돈을 좋아하고 있던 상태에서, '아! 사랑을 사냥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빨리 돈을 좋아하는 마음 대신에, 돈 대신에 하나님을 벌자, 하나님을 사냥하자!'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믿음의 지점에 도달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식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곧바로, '자식이 관건이 아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바르게 지점을 채택해 내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올바른 지점에 올라서야 되는데, 내가 입으로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하나님만이 내가 진짜로 만족하고 웃을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야!'라고 입으로 말한다고 진정으로 믿음의 단계에 올라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제일 좋으신 분이 실제로 되어서, 나에게 만나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죽는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만져지는 것들 중에,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좋아할 만한 게.
근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 좋아할 만한 모든 대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좋아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사랑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만 있으면 내 마음이 만족할 수도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기쁠 수도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동안 하나님 말고 좋아하면서 추구했던 죄악들에 대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죄 씻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좋아하는 게 죄악이에요.
꼭 십계명을 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십계명을 범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좋아하는데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다~!

이렇게 해서 죄 씻김을 받게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좋아할 수 있는 마음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좋아할 만한 다른 다~ 모든 게 죽어야,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또 실제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도착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서야 비로소 추구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하고, 집요하게 추적해 나가는 것처럼, 소망의 단계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단계를 거쳐서, 정말 집요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계속해서 좋아할 만하고, 고것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같이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는 마음 단계가 되면서, 그 좋아하는 하나님을 추적해 들

어가서, 기어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단계로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단계가 반복 순환되는 동안에, 우리는 사랑을 사냥할 수가 있고, 날마다 사냥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고 신령한 모든 것들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은사들 제쳐놓고, 사랑을 추구하라 하시면서 사도바울은, 예언과 방언만을 얘기하며, 더군다나 예언을 방언 위에 우월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은사가 많은데 왜 예언과 방언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과 방언은, 은사로써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써 말한 예언과 방언은 12장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선 예언과 방언을 왜 말하고 있느냐?
사랑을 추구하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도달해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도달하기 위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불가결의 방법으로써 예언과 방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언이 이렇게 사랑을 사냥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에 도달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일까요?
특별히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도바울이 강조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예언의 은사의 특징이 뭡니까? 그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 얼마나 하나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측정함에 연관되어서, '이 거리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사건들에 대한 말씀들도 주어지는 것이고, 연관된 다른 말씀들이 다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언의 핵심은 바로, 이 거리측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선민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진단해 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선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로서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실제 하나님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이 옆에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내편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제로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과의 거리를 제로로 만들 때, 사냥감 짐승을 획득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언의 은사는 사냥꾼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제로가 돼야 되는 선민들에게, 그 거리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냥해야 될 지점까지 도달하게 해 주는 게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유기적인 연결 단계를 틀로 삼아서, 들여다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문제가 바로 그 점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거리가 생기냐 하면, 믿음의 지점에서부터 잘못 올라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지점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의 십중팔구는 교회성장학이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완전히 쇠뇌가 돼버렸어요, 교회성장.
교회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신학이론 중에 가장 불순한 이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심어준 신학이론이에요.
구약시대 때 선민들이 풍요와 다산이라는 세상적인 가치에 홀딱 빠져가지고 완전히 노예가 돼서, 풍요와 다산이 뭡니까? 부자 되고 많아지는 것 좋아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 가치에 노예가 되어서, 바알 숭배를 할 때와 똑같은 겁니다.
풍요와 다산의 가치에 노예가 된 상태에서, 그 풍요와 다산이라는 가치를 기독교적으로 옷을 입혀놓은 것이 바로, 교회성장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교회는 성장할 것이지마는, 성장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과 머릿속에 기억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라고 물을 때,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하나님아버지께 맡기고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클 것인가, 언제 클 것인가'라고 하는 점은 하나님아버지께 맡기고,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성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성장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민들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로서의 하나님과의 거리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것에 대해서, 모~든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대제사장과 선지자들, 요즘으로 말하면 교계의 지도자들과 목사님 모두가 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탐욕을 부려요.
탐욕을 부린다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 좋다고 느껴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 하나님 이외의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게 다 탐욕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을 좋다고 느끼는 것이 탐욕의 시작입니다.
근데, 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3장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자기 마음의 강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한국교회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돈 벌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놔두고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얘기이고, 하나님을 놔두고도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얘기이고, 하나님을 놔두고도 자녀가 잘 돼야 행복하다는 얘기이니까 이보다 더 하나님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자들에게,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느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앞으로 잘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사랑을 사냥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언의 은사는 뭡니까?
지금 방언의 은사를 조금 열등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가 속내가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가 교회를 공동체적으로 사랑을 사냥하게끔 하는 것이라 그러면, 방언의 은사는 개인적으로 사랑을 사냥하게끔 하는 은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나온 겁니다.
단지, 방언을 고린도교회가 공공연하게 대중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자랑하는 풍토에 대해서 침을 놓는 것이지요.
그러나 방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언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좀 더 폭넓게 얘기하면,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사랑을 사냥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시간을 가짐으로, 방언을 받고 기도하면 더 수월하게 사냥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교회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진단해내고 측정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서 사랑을 사냥해 낼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정확하게 믿음의 지점에서부터 자리를 잡아내야 됩니다.
마치 허 준이, 침을 놓을 때 침 자리를 잡아내듯이 정확하게 잡아내야 되는데, 교인들 마음은 지금 전부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서 엉뚱한 것을 소망하고 엉뚱한 것에 대한 사랑의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전하고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꼭~ 있어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좋아할 만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죽지 않는 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곧 사랑 사냥의 처음이요 마지막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심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만족의 근거이고, 참 좋은 대상이라는 것을 내 마음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단계에 사냥꾼의 집요함을 보이며 소망하시고, 그래서 기어코 사냥꾼이 사냥감 짐승을 손에 넣듯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제로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은총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사냥감 짐승을 향한 사냥꾼의 집요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기어코 사랑의 단계에 도달하여 사랑을 사냥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그러기 위해서 집에 있을 때나, 나가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